

대장경판 머리이고 600년 전 선조들이 걷던 길을 걷다

대장경 조성 천년 기념 이운행사 18~20일 봉행 ... 서울·합천 등서 1000여 불자 동참해 장관



대장경 천년을 기념하는 이운식모습. 벌써 30도를 넘는 날씨에도 당시 선도들의 옷을 입고 이운을 그대로 재현한 불자들의 모습이 경건하다.



불교계와 정관계 인사들은 기념식에서 탁본을 하며 대장경 조성 천년의 의미를 널리 펼 것을 다짐했다.



고령 개령포에서의 이운식 모습



합천 해인사에서의 고불식 후 반출되는 대장경판

600여 년 전 강화도 선원사에서 조판된 대장경판을 서울 지천사로, 이어 합천 해인사로 옮겼던 옛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대장경 이운(移運)이 서울 한복판에서 재현됐다.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을 기념한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100일 앞둔 6월 19일, 1000여 스님과 신도들은 모조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거나 등에 지고 600여 년 전의 대장경 이운 행렬을 그대로 재현했다.

취타대 호위군 문무백관 농악대 등으로 구성된 이운행렬이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를 출발해 인사동길, 종로2가를 거쳐 청계천로 광통교까지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자 서울 시민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시선이 모아졌다. 벌써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행사에 참가한 봉사자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신명나게 대장경을 이운했다.

김상현(45·서울 중랑구) 씨는 "팔만대

장경 이운행렬을 직접 보고 우리 전통문화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나온 이석정 주부(37·서울 마포구)도 "무더운 날씨에도 이운행렬을 진행하는 분들을 보니 국난의 위기에서 대장경으로 한마음이 된 옛 선조들의 정신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대장경 이운행렬 고불식을 시작으로 3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9월 23일 개막하는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해인사와 경남도, 합천군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전날인 18일에는 합천 해인사에서 대장경 이운행렬 고불식(告佛式)이 봉행됐으며, 19일 행사에 이어 20일에는 고령 개령포에서 목선을 이용한 이운행사와 해인사 장경판전 봉안의식이 거행됐다.

이와 함께 6월 15~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축전 기념 부스가 마련돼 서울 시민들이 사경 등을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됐다.

대장경 고불식에서는 대장경판 원본 1판이 반출돼 이운행렬의 선두에 섰다. 대장경판 원본 반출은 지난해 서울 코엑스 국제기록문화전시회 전시를 위한 반출 이후 세 번째이다. 서울 이운행사에서는 모

신명나게 대장경판 이운하는 모습 보여 외국인들 'wonderful(원더풀)' 환호성

조판으로 대체됐다.

마무리 행사인 개령포 이운행렬은 조선 태조 7년(1398년) 강화도 선원사에서 서울 지천사를 거쳐 배를 이용한 이운행렬 경로를 재현했다.

당시 이운행렬은 한강에서 서해로 이동한 후 남해를 돌아 낙동강 하구에서 고

령군 개령포에서 대장경판을 하적해 다시 육도로 합천 해인사에 대장경을 이운했다.

이날 목선에서 개령포 나루터로 옮겨진 대장경판은 합천 해인사로 이동해 당시 이운행사 그대로 길상암에서 대적광전 앞 탑

마당까지 이운법회를 거쳐 장경판전 봉안 의식을 끝으로 다시 해인사에 봉안됐다. 장경판전 봉안의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송, 찬불가,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의 봉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승무 바라춤 공연을 끝으로 성료됐다.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이번 이

운행렬 재현은 선조들의 혼이 이어 받는 의미로 국론 분열을 막고 온 국민을 한 데 모은 대장경의 참뜻을 되살리자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대장경판이 당시 해인사에 봉안된 이유에 대해서 "해인사가 불, 물, 바람의 삼재에서 벗어난 곳일 뿐만 아니라 불심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기 위함"이라며 "현재 국가적인 중대기로에서 대장경 천년을 계기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서도 대장경의 의미가 재발견되고 있다. 한국의 자랑스런 문화인 대장경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도 "고려대장경은 불교를 통해 한마음 한뜻이 된 선조의 지혜와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다. 이

런 의미와 가치를 국민 모두 나눌 수 있는 문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9월 23일~11월 6일 45일간 합천 해인사 들머리와 창원 컨벤션센터 등지에서 '살아있는 천년의 지혜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2011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은 대장경을 주제로 전시와 공연, 판각인경, 108배 기네스 도전, 사찰음식 체험 행사 등이 열린 예정이다.

또 대장경을 중심으로 한국의 학술적, 문화적인 이미지를 높여줄 국제학술 심포지엄과 해인사와 주변 13개 암자에 세계 유명 작가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해인아트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된다.

대장경판은 고려 때 불심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강화도 대장도감에서 제작해,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되다, 1398년에 스님과 신도들에 의해 해인사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노덕현 기자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 2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제포교사(승려, 재가 법사) 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증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맘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웬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8월 18일. 수계의식 6박 7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신청기간 : 7월 10일까지 모든 서류 접수 완료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